철학/02/발표논문/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자유를 향한 움직임-

양선진 (서울신학대학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1절)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모더니즘을 넘어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대는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다소 어렵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포스트모던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모던 시대에 대한 올바른 진단 없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선 시대를 전후로 하여서 한국적 문맥에서 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모더니즘 이전 시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연구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하는 사조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근대화가 무엇이며 또한 근대화의 근본적 특성 및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기 보다는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최신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설명될 수 있는 듯하다.[1] 하지만 논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전근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근대화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된 전근대사회와 근대 사회의 이행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사회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근대 이전 사회의 중심을 형성했던 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를 이해하는 문화적 이고 정신적 차원을 고찰할 것이다. 논자의 제한적 능력으로 인해서 조선 유학의 형이상학적 특징과 유학자들의 주장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의 조선의 개화론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 시대의 전근대 사회

오늘날 성리학을 하는 자들은 이(理)니 기(氣)니, 성(性)이니, 정(情)이니, 체(體)니, 용(用)을 말하고, 본연(本然)이니, 기질(氣質)과 이발(理發)이니 기발(氣發), 이발(已發이니, 미발

1) 정정호.강내회편,『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서울: 문화과학사,1994), pp.229~230.

(已發未發)을 말하며, 단지(單指)이니, 겸지(兼指)니 이동기이(理同氣異)니 기동이이(氣同理異)니 하고, 심선무악(心善無惡).심유선악(心有善惡)이니 떠들어 대면서 수만 가지로 나뉜 주장을 편다. 이렇게 터럭 끝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다가는 자기주장이 옳다고 기세를 올리면서 목에 핏대를 세운다. 스스로 천하의 지극히 고묘(高妙)한 이치를 터득한 것처럼 떠든다. 동쪽으로 뻗으면 서쪽에서 부딪치고, 이처럼 말꼬리를 잡고서 두서없이 떠들어대며, 문호마다 기치를 세우고, 집집마다 보루를 세워 한 세대가 끝나도록 능히 그 송사를 결판낼 수가 없고, 후대까지도 그 원망을 풀 수가 없다. 주장에 동조하면 존중하고, 벗어나면 멸시한다. 생각이 같으면 떠받들고, 다르면 공격한다. 자기의 주장한 바가 지극히 옳다고 여기지만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2)]

위의 인용문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조선 시대의 주희(朱熹, 1130~1200)를 중심으로 전개된 성리학(性理學)이 점차적으로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성리학을 극단적으로 옹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교조화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3)] 정약용은 조선 사회가 주자 성리학적 세계관에 예속되어 나타난 폐단을 지적하면서 유교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국의 제후국 또는 속국(藩國)으로 인식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 또는 전통적 화이론(華夷論) 내지 사대주의(事大主義)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4)5)] 원시 유학이 사람들 사이의 도덕성에 기반을 두어서 사회를 운영하려는 도덕주의적 사회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였다면, 정약용은 국가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조율하고 국가 간의 힘의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실주의적 정치 제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사회가 중국 중심 사회에 예속되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제도를 주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6)] 전통 성리학자인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유인석(錫, 1842-1915) 등의 위정척사론자(爲政斥邪論者)들은 대한제국 시기(1897-1910)에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1897. 10월 12일)하면서 군주주권국가를 주창하자 반대하였다.[7)8)]

정약용은 성리학의 교조주의적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에는 교조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야함을 역설하려고 노력하였다.[9)] 브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가 지적한 것처럼, 한 사회의 발전의 정도는 단지 경제적 측면이나 물질적 측면만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문화적이고 정신적 측면도 분명히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선 사회는 가시적이고 경제적 측면의 근대화는 아니지만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

2) 정약용.『與猶堂全書』. 1집.「詩文集」. 11권.「五學論」. 今之爲性理之學者 曰理 曰氣 曰性 曰情 曰體 曰用 曰本然 氣質 理發氣發 已發未發 單指兼指 理同氣異 氣同理異 心善無惡 心善有惡 三幹五極 千條萬葉 毫分縷析 交嗔互嚷 冥心黙研 盛氣赤頸 自以爲極天下之高妙 而東振西觸 捉尾脫頭 門立一竊 家築一壘畢世而不能決其訟 傳世而不能解其怨 入者主之 出者奴之 同者戴之 殊者伐之 幟自以爲所據者極正 豈不疎哉

3) 양선진,「퇴계와 고봉: 사단칠정 (四端七情) 의 현대적 해석 -윤리학적·심리학적 해석에서 철학치료의 지평으로-,『東洋哲學研究』, 87집, 동양철학연구회, 2016, 7-36쪽.

4)『經世遺表』, 卷一,「天官吏曹」, 前言. "周禮 天子之禮 我國家 藩國也 制度宜小."

5) 강화도조약,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기되어있지만 조선은 중국과 별개의 독립국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였다.

6) 이영훈,「다산 경세론의 경학적 기초」,『다산학』, 1호, 다산학술재단, 2000, 122-161쪽.

7) 김명섭, 김석원, 「독립의 지정학: 대한제국시기(1897-1910) 이승만의 지정학적 인식과 개신교」,『한국정치학회보』, 42(4), 2008, 59-86쪽.

8) 이승만은 추후에 군주주권국가를 반대하고 국민주권국가를 주장하다고 감옥에 투옥된다.

9) 정소이.「정약용 심성론의 변천과 전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9-12쪽 참조.

10) P. Bourdieu. 1972. Esquisse d'une théorie de la pratique, Éditions Droz. Richard Nice(tr.). pp. 22-29.

문화적 토양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이데올로기가 종교적 색채를 띠면서 유학, 특히 성리학 이외에는 모든 사상을 수용하지 않는 교조주의적 자세를 취한다.[12]

주희의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적 흐름은 용납될 수 없는 사회였다. 따라서 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경쟁은 불가능했으며 배척되었다. 조선 사회는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만이 통치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그 이외의 어떠한 사상과도 접목될 수 없는 사회였다. 조선 사회의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사대부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하며 개인의 위상은 사회적 신분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불평등한 사회였다. 신분제에 근거한 성리학에 반기를 들고 나온 유학 내의 새로운 사상이 바로 양명학(陽明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 사회에서 양명학은 바로 정제두(鄭齊斗, 1649~1736)를 선두로 이해할 수 있다.[13]

성리학은 인간을 비롯해 우주의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리기론(理氣論)이다. 기(氣)란 우주자연의 현상과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적인 것이라면 리(理)란 구체적인 기의 이치 또는 원리이다. 리(理)는 소이연지리(所以然之理)라는 존재적 원리와 소당연지리((所當然之理)라는 윤리적 원리의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14] 성리학자인 주희는 존재론적 차원(所以然之理)보다는 가치론적 차원(所當然之理)에 대한 탐구에 매진하였다. 따라서 존재론적 차원에 속하는 자연과학은 중국에서 발전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윤리학적 차원만이 발전하였다.

마테오리치는 <곤여만국전도>에서 16세기 유럽 학문의 우수성을 세계지도 제작을 통해 중국에 전파하고자 종래 중국의 천원지방(天圓地方)적 우주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지도 제작법을 소개하였지만 중국은 종래의 천동설적 우주관을 유지하였다.[15] 조선 사회는 17세기 이후 서구의 세계 지도가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세계 지도의 주류는 중국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세계지도가 주류를 형성하였다.[16]

따라서 조셉 니덤(Joseph Needham, 1990-1995)에 의하면,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중세의 자연과학(화약, 나침반, 천체관측기구인 적도좌표계 및 인쇄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와서 서양보다 근대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중국의 성리학적 체계를 수용한 조선 사회 역시 과학기술은 발전이 지연되었으며 근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다.[17]

주희의 이일분수(理一分殊)[18]와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존재들은 모두 '리(理)'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지만, '리'를 모두 동일하게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존재들이 지니고 있는 '기(氣)'의 맑음과 탁함((淸濁)과 조밀함과 엉성함(粹駁) 또는 어둠과 밝음(昏明)의 차이에 근거한다는 관점이다.[19]

위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종들과 다른 기를 지니고 있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타고날 때부터 지혜를 지닌 자(生知之資)는 기가 밝고 순수하며 조금도 어둡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

---

11) 졸고,「정제두의 사상과 근대화」,『한국학논집』, 한국학연구원, 74집, 2019. 169-191쪽.
12) 홍원식,「근대시기 영남유학의 운동과 사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Ⅲ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5), 567쪽
13) 같은 책.
14)『大學或問』, 至於天下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與其所當然之則, 所謂理也.
15) 유학자 홍대용도 이런 중국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16) 오상학,「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한국고지도연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1(1), 2009, 5-18쪽.
17) 중국이 근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관료제 사회에 근거해서 문인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조셉 니덤은 파악했다.
18)『栗谷全書』, 卷10, 書2,「答成浩原」, "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理乘."(이승환,『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출판사, 1998, 335-338쪽 참조)
19)『朱子語類』 券4, 自精粗而言, 則人得其氣之正且通者, 物得其氣之偏且塞者. 惟人得其正, 故是理通而無所塞; 物得其偏, 故是理塞而無所知. [...] 然就人之所稟而言, 又有昏明淸濁之異.

다음은 배우면 알게 되어 반드시 도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學而後知)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남이 한 번 할 때 본인은 열 번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하면서 기에 따라서 사람도 구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조선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자유와 가치를 주장하는 반성리학적 몸부림인 양명학적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리학에 근거한 사회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을 다시 구별 짓고 차별화하는 철학적 근거가 성리학 내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주희의 이일분수설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인간과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논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기에 이른다.[21] 이러한 형이상학적 체계는 조선 사회의 신분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강력히 작동했다는 것이며 조선 사회의 신분적 폐쇄성은 조선 사회가 끝날 때까지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22]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 주장한 신분제 폐지 요구는 갑오개혁(1894년)까지도 관철되지는 않았다. 조선 사회의 유교적 덕치나 예치는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자들이 지배하기 위한 형이상학적이며 도덕적 안전장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23]

> 하늘이 이 백성을 내어 그들을 위해 먼저 田地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군주를 세우고 목민관을 세워서 군주와 목민관으로 하여금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하여, 그 산업을 골고루 마련해서 다 함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된 사람은 그 여러 자식들이 서로 치고 빼앗아 남의 것을 강탈해서 제 것으로 만들곤 하는 것을 팔짱을 낀 채 눈여겨보고서도 이를 금지시키지 못하여 강한 자는 더 차지하고 약한 자는 떠밀려서 땅에 넘어져 죽도록 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이 된 사람은 과연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것일까? 그러므로 그 산업을 골고루 마련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한 사람은 참다운 군주와 목민관이고, 그 산업을 골고루 마련하여 다함께 잘 살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이다.[24]

조선후기 實學은 중세사회의 질서가 해체되는 시기에 형성된 위기 극복의 논리이자 새로운 사상과 .학문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의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성리학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폐단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의 경제관을 고

---

20)『朱子語類』券4, 故上知生知之資, 是氣淸明純粹, 而無一毫昏濁, 所以生知安行, 不待學而能, 如堯舜是也. 其次則亞於生知, 必學而後知, 必行而後至. 又其次者, 資稟旣偏, 又有所蔽, 須是痛加工夫, "人一己百, 人十己千", 然後方能及亞於生知者. 及進而不已, 則成功一也.

21) 韓元震, 『經義記聞錄』, 권2,「中庸」第一章, 人物所得之理不同,故所循之性不同,所循之性不同,故所行這道不同,人物性道之不同可見矣.

22) 갑오개혁(1895)에 가서야 비로소 수용되기도 했지만 완전한 신분제 철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3) James B. Palais,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ŏngwŏn and the Late Chosŏn Dynasty(the Univ. of Washington, 1996), 1003쪽.

24)『與猶堂全書』文集 권11,「田論」1. "天生斯民 先爲之置田地 令生而就哺焉 旣又爲之立君立牧 令爲民父母 得均制其產而竝活之 而爲君牧者 拱手孰視其諸子之相 攻奪竝呑而莫之禁也 使強壯者益獲 而弱者受擠批 顚于地以死 則其爲君牧者 將善爲人君牧者乎 故能均制其產而竝活之者 君牧者也 不能均制其產而竝活之者 負君牧者也"

25) 실학이 그 자체적으로 근대화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재적 발전론으로 해석하는 민족주의적 학자들이 많다. 김용덕, 1977,『조선후기 사상사연구』, 을유문화사 ; 김용섭, 1976,「조선후기 농업문제와 실학」,『동방학지』17 ; 1976,「갑신.갑오개혁기 개화파의 농업론」『동방학지』15 ; 정호훈, 2009,「한국 근・현대 실학 연구의 추이

찰하면, 성리학의 폐단을 비판했지만 조선 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근대화를 견인한 이론이라고 주장[26]한다면 무리가 있다.[27]

> 정전제는 井字의 중앙은 公田이 되고 나머지 지역인 8부분의 가장자리의 농지는 私田이 된다.[28]

정약용이 주장한 정전제는 선진유교의 이상적인 토지제도로서 맹자(孟子)가 주장한 것[29]이며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유학의 원류에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농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의 경작 능력에 따라서 농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자본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을 농부에게 대가없이 무조건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30] 조선은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는 사상(王土思想)을 추구했지만 왕조 초기부터 私田이 존재했으며, 후기에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었다.[31] 따라서 정전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상적 토지제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빈 메아리에 불과한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약용 본인도 알고 있었다.[32] 정약용의 정전제는 기본적으로 왕도정치를 전제하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근대적 경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법치(法治)보다는 예치(禮治)를 강조하는 사상이다.[33]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 떨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치(法治)라고 보았다면, 자연적 이치(天理)에 부합하고 사람들의 정서에서 부합하는 원리에 따라 사회 운영의 원리를 정하는 것을 예치(禮治)라고 보았다.[34] 서구가 근대화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치가 등장하였다면, 유교적 예치주의는 내면의 수양이 잘 되어 높은 도덕성을 지닌 인물이 통치하는 인치(人治) 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인치주의는 현실적으로 권력자의 도덕성의 결여가 통치의 부작용으로 연결되면서 도덕적 수준이 높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사회적 폐해와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35]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신분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 능력을 규정하였다. 반면에 근대의 개인들은 개별적 주체로 등장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보다는 외적 제도와 법에 의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다. 근대의 개인은 어떤 신분에도

와 그 문제의식」『다산과 현대』 2 ; 2015. 17세기 실학을 성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국가체제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정통 주자학과 대비시켜 이해하고자 한 연구로는 김준석, 2003,『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혜안 ;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 지배정책 연구』이 있다. 반면 실학의 근대성을 부정하는 연구(김태영, 1988, 『실학의 국가개혁론』, 서울대학교출판부)와 실학을 조선후기의 '소농사회' 성립과 연관하여 이해하면서 근대성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연구(이영훈, 1996,「다산의 정전제 개혁론과 왕토주의」『민족문화』19 ; 2001,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실학」『한국 실학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등이 있다. (이진형. 「茶山 丁若鏞의 鄕村社會認識과 改革構想」.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7) 3쪽 재인용)

26) 신용하,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7, 154-156쪽.

27) 이영훈, 1996, 「다산의 정전제 개혁론과 왕토주의」, 『민족문화』, 19, 2001, 54-111쪽.

28) 『經世遺表』, 卷十二,「地官修齊」, 田制一. "井田之法 中爲公田 四畔爲八夫之私田,"

29) 『孟子』,「滕文公上」, 孟子曰[...] 夫仁政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經世遺表』, 卷二十, 「地官修齊」田制九. "孟子 每以井田 爲仁政 仁政者 井田也."

30) 정일균, 『茶山 四書經學 硏究』, 서울: 일지사, 2000, 107-114쪽.

31) 『經世遺表』, 卷二十, 「地官修齊」田制十. "古皆王田 故可以如彼 今皆私田 則自耕其田者 官不可禁."

32) 이상호, 「정약용(丁若鏞)의 개혁사상과 정전제(井田制): 근대지향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5, 2011, 121-163쪽.

33) 『論語』,「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34) 『經世遺表』, 「邦禮草本」, 引. "揆諸天理而合 錯諸人情而協者 謂之禮 威之以所恐迫之以所悲使斯民兢兢然莫之敢干者謂之法先王以禮而爲法後王以法而爲法 斯其所不同也."

35) 이상호, 같은 책, 121-163쪽.

속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도덕성의 수준보다는 외적 규제와 법에 의해서 개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별이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다. 조선 사회는 근본적으로 주자학에 대한 대안으로 실학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전근대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기독교라는 이단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는 제임스 팔레(J. B. Palais:1934-2006)의 평가를 되새겨볼 만하다.[36]

3. 근대화와 개인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37]

modernity에서 'modern'에서 나온 단어이며 modern이라는 말은 로마자 'modernus·moderna'에서 기원하였고 modernus는 부사 modo에서 파생한 형용사이며 '지금, 막'이라는 라틴어 부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이다. 따라서 modernus는 '지금의'라는 뜻으로 기존과 달리 새로운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시대와 달리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 근대사회는 전 근대 사회와 달리, 이제 막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서구와 비서구 사회 전체를 근대화시킨 것은 바로 과학혁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38] 하지만 근대화는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 근대화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의 근본을 형성한 심층, 즉 일반적으로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한다. 사상적인 측면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며 문화적인 요소들은 간접적이지만 사회적 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문화적 요소의 핵심은 바로 종교이며 서구 사회에서 문화의 중심에는 기독교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제도의 중심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근거는 바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개신교 종교개혁 선언(the Protestant Reformation; 1517)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특히 루터에서 기원한 만인사제설(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萬人司祭設)에 근거해서 개인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39]

>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회 구조 (더 적절하게는 권력구조)와 정신구조 사이의 조응, 말하자면 언어 . 종교 . 예술과 같은 상징체계의 구조를 매개로 성립되는 조응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된다.[40]

문화는 비가시적이며 간접적인 모습을 지니지만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 추동력이며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예를 들면, 서구 사

36) J. B. Palais, 같은 책, 14쪽.
37) 갈라디아서 5장1절
38) 허버트 버터필드. 1986.『근대과학의 기원』. 차하순 역. 탐구당.
39) Philpott, Daniel. 2000. " The Religious Root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52. 2000, 214-216쪽.
40) P. Bourdieu. 'Genèse et structure du champ religieux,' in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Vol. 12, No. 3. p. 300.

회에서 종교개혁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문화적이며 사상적인 힘이었다.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에 청나라 말엽에 일어난 양무운동(洋務運動;1861)은 중체서용(中體西用) 또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사상에 따라서 물질적 문화의 근대화에만 치중했을 뿐, 비물질적인 문화인 사회, 정치 체제의 근대화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비물질적 문화의 핵심인 서구의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은 서구 열강에 대적할만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낡은 제도와 전통,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개혁하지 않아 수많은 전쟁, 특히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에 크게 패함으로써 양무운동의 한계성과 관료들의 부패함이 드러나게 된다.[41] 청나라는 양무운동의 실패를 겪으면서 서양의 물질문화만이 아니라 비물질 문화를 도입해야겠다는 반성에서 '제2단계'의 근대화 운동인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 運動;1898)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맹자(孟子)의 위민론(爲民論)[42]적 성격에 머물렀으며 서구에서 일어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의 단계로 나가지 못했다.[43]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는 수많은 서적들이 중국에서 유입되었다. 고종이 미국과 수교를 한 시점(1882년)을 전후해서 서양관련 도서들이 들어왔지만[44] 1880년대 중국의 동도서기의 시각에서 유입된 것이다. 조선의 실학파는 중국의 양무운동에 기반을 둔 온건적 개화파인 이용후생학파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를 적극 수용하기를 원하는 급진개화파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미국식 교육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회에서 실학파인 이용후생학파는 중국의 양무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조선의 고종과 온건개화파들은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였다.[45] 이항로(李恒老), 기정진(奇正鎭), 최익현(崔益鉉) 등의 척사론자(斥邪論者)들은 온건개화파들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정신문화인 기독교는 거부했을뿐만 아니라 물질문명 역시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의 천주교가 유입된 이후에 유교적 질서를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배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었다.[46] 조선이 일본과 수교한 직후에 온건개화파보다 젊은 세대였던 불교도들인 김옥균, 박영효[47] 등을 중심으로 급진개화파가 형성되었다.[48] 급진개화파들은 중국을 문명으로 이해하고 오랑캐를 야만으로 이해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달리, 유럽을 문명으로 파악하고 동양은 야만으로 파악하는 사고를 후쿠자와 유키지(福澤諭吉;1835-1901)에게 배웠다. 급진개화파들도 척사파들이나 온건개화파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자세를 취하기는 마찬가지였다.[49] 후쿠자와와 개화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유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자부심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개화파 중에서 미국 선교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미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친기독교적

---

41) 서양의 기술만이 아닌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2단계'의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변법운동이라 한다.

42) 『孟子』, 「梁惠王章句上」, 今也制民之産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治禮義哉

43) McGrath, Alister.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The Protestant Revolution - A History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Twenty-First. New York: Harper One. 2007, p. 52.

44) 류대영, 「종교와 근대성: 개신교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태도와 근대성 문제」, 『종교 문화비평』, 4, 2003, 33-70쪽.

45) 한성순보의 글에서 「예수교를 논함(論耶蘇敎)」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기재함(1884년6월14일 기록)(류대영, 같은 책 참조)

46) 류대영, 같은 책.

47) 지적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친기독교적이었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48) 이광린, 『개화당연구』, 일조각, 1996, 1-110쪽.

49) 류대영, 위의 책.

인 인물인 서재필과 기독교로 회심한 인물은 윤치호, 이승만 등이 있었다.[50] 윤치호는 기독교를 접하면서 자신의 방탕한 삶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고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독교를 통해서 참된 삶이 가능함을 깨달았다.[51] 윤치호는 그후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을 가장 문명적인 나라로 인식하였다. 그는 미국 문명을 근원에는 기독교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다.[52] 이런 맥락에서 그는 유교와 불교적 차원에서 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조선 사회가 문명화되는 핵심은 바로 조선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라는 시각이었다.[53] 윤치호, 서재필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를 접하였던 이승만도 유사하다.[54]

조선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유학적 사고에 의하면, 기독교는 공자(孔子)의 사상에 위배된다.[55]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멀고 허황된 하늘의 아버지는 공경하면서 가깝고 친한 부모를 위한 제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유학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56] 따라서 양무운동의 중심사상인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적 시각에서 조선 사회는 서양의 비물질 요소의 핵심인 기독교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독교를 통한 사회적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선의 근대화는 근대화의 핵심 요소인 기독교를 대표로하는 비물질적 요소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로 나아가지 못했다.[57] 근대화의 핵심 정신인 개인의 가치의 근원에는 루터가 언급한 만인사제 사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1904/05)』에서 지적하듯이,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과 종교적 요인은 내적 연관성이 아주 긴밀하다.[58]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좀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는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1902)』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이윤추구의 욕구'로 주장한 반면에,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칼빈주의(Calvinism)', 즉 개신교의 윤리(ethos), 즉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직업윤리에서 찾았다.[59] 칼빈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업(beruf)활동을 하는 것이다.[60] 칼빈주의는 겸손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금욕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

50) 류대영, 위의 책.

51) 류대영,「초기 한국교회에서 'evangelical'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의 문제」,『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5집, 2001, 117-144쪽.

52) 류대영,「종교와 근대성: 개신교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태도와 근대성 문제」,『종교 문화비평』, 4, 2003, 33-70쪽.

53) 유영렬,『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한길사, 1995, 173-181쪽.

54) 유영익,『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61-62쪽.

55)『論語』,「述而」, 子不語怪力亂神.

56) 1880년경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인 황쭌셴[黃遵憲]은 <私擬朝鮮策略〉에서 천주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였다, 천주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만 개신교(耶蘇敎)는 기독교의 가르침만을 전할뿐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친중국(親中國)하고 결일본(結日本)하며 연미국(聯美國)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종은 조선책략을 읽었고 중신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지만 결국 서양의 기도교는 천주교가 되었든 개신교가 되었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서양의 문물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수용하려고 하였다.

57) 양선진,「정제두의 사상과 근대화」,『한국학논집』, 한국학연구원, 74집, 2019, 169-191쪽.

58) 최한빈,「막스 베버가 본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윤리 :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74쪽.

59) 최한빈, 같은 책, 74-75쪽, 125쪽.

60) 베버는 청교도 정신에 투철한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상업정신에 투철한 야곱 푸거(Jacob Fugger)를 비교한다. 프랭클린을 자본주의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영광을 돌려야한다는 입장이다.[61] 많은 연구자들이 서양의 경제적 차원에서 근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합리성이라는 해석[62]도 있지만 서구의 경제적 차원의 근대화를 추동시킨 근원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 즉 칼빈주의(Calvinism; John Calvin, 1509-1564)은), 특히, 영국의 청교주의(Puritanism)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베버는 정신적이며 종교적 요소들은 비가시적이지만 물질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막대한 영향을 형성함을 지적하였다.[63] 베버는 마르크스와 달리,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단순히 분업[64]을 통한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요소, 특히 종교적 요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주장한다. 베버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달리, 서양이 근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합리화의 과정이라고 진단하였지만 서양의 근대화를 추동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한 만인사제설에서 기원한 개인의 발견이다.[65]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사상인 개인의 발견은 결국 법률적 차원에서는 법치주의를 만들었으며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될 수 있었다.

동양, 특히 조선 사회에 합리화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베버가 근대화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 기업 조직의 합리화가 동양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방식의 합리화는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유학은 아주 합리적 학문, 즉 형이상학적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근대화를 추동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합리화'라기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 형이상학에서 기원한 '개인'의 발견에 있다.[66] 개인의 개념이 부재한 동양사회에서 근대화의 핵심 요소가 부재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화가 가능할 수 없었다. 조선의 가산제(家産制) 국가 제도에서는 개인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경쟁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결국 국가의 번영과 성장을 창출할 수 없었다.[67] 자본주의 사회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리추구와 금전욕을 뒷받침할 정신적 요소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신적 요소는 바로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68]

4. 근대화와 대한민국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朝鮮)은 일본의 한 지방으로 인정되었다.[69] 조선인들에게 언론 및 집회 그리고 출판의 자유 등 온갖 종류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일본어만이 사용되었다. 일제는 105인 사건 이후에 1915년 포교규칙을 제정 반포하여 종교적 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70] 기독교인들은

61) 김영태,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기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倫理硏究』, 한국윤리학회, 81, 2011, 129-153쪽.
62) 최우영 역, 『막스 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서울: 백산서당, 2004, p. 65; Bryan S. Turner. Max Weber from history to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1992, p. 36.
63) 김영태, 같은 책.
64)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76, pp. 14-15. 핀공장의 예시를 통해서 분업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을 설명한다.
65) 루터는 비텐베르크대학()1512년)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였다.
66) 양선진, 같은 책.
67) 국부론 1권 2장, 프랑스의 철학자인 토크빌(Alexis Tocqueville, 1805-1859)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반권위적인 태도가 칼빈주의를 수용한 나라,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미국 국민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68) 최한빈, 같은 책, 107-108쪽.
69) 이기백, 『한국사신론』, 432쪽.
70) 이영식, 「한국장로교회와 복음의 대 민족적 책임(1884-1945)」, (총신대 박사학위논문, 2014) 97-98쪽 참조.

종교적 자유와 사상적 자유를 누릴 수 없었으며 1911년 8월 조선신교육령(朝鮮新教育令)이 반포되면서 결국 조선인들은 충실한 일본의 국민이 되어야함을 교육해야한다는 교육령이 반포된 이후에 1915년 3월24일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따라서 한국역사와 지리를 가르칠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계 학교들이 많은 경우에 폐교되었다.[71] 신분제에 근거한 조선인,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망각한 조선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바로 시대적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사회를 지탱하던 중국중심주의[72]적 정치신념의 한계를 어렴풋이 인식한 이후에 중국(靑)으로부터의 "독립(獨立, Independence)"을 주창했던 서재필(徐載弼; Philip Jaisohn, 1864-1951)[73]이 세운 독립협회(獨立協會;1896년)[74]가 창설되었으며 독립협회의 활동은 대한제국 시기의 고종과의 일정 부분 협력 관계 속에서 고종의 군주 주권론을 비판하면서도 국가의 독립성을 일깨우는데 일조했다.[75] 서재필은 조선에 거주하는 동안 배재학당에서 그리고 그가 발간한 《독립신문》을 통해서 천부인권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쳤다.[76] 그리고 공화정을 주장했던 신민회(新民會;1907년)[77]가 성립되었다.[78][79]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 사상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몰개성적 민족주의 사상과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에서 기원한 사회주의 사상이 소개 및 유입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려고 하였지만 독립운동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 등 항일무장투쟁노선에 의존해서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애국계몽, 외교, 언론, 교육 등 평화적이며 비폭력적 방법으로 독립을 얻어야한다는 외교독립운동 노선의 입장으로 분열되었다.[80]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의 충고에 따라서 국제 관계 속에서 독립운동을 해야만 독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승만은 기독교 전파가 민주주의 정신의 보급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81]

> 대한에 자초로 유교가 있어 정치와 합하여 세상을 다스리기에 극히 선미한 지경에 이르러 보았은즉, 사람마다 이 교만 실상으로 행하면 다 이전같이 다시 되어 볼 줄로만 생각하여 다른 도리는 구하지 않고 다만 이 도를 사람마다 행치 않는 것만 걱정하니, 비컨대 어려서 입어 빛나던 옷을 장성한 후에 다시 입으려한즉 해져 무색할 뿐 아니라, 몸에 맞지 않는 줄은 생각지 못하고 종시(종시) 입기만 하면 전같이 찬란한 줄로 여김과 같은지라. ... 옛적에는 사람의 도(道)로 다스리던 것을 지금은 하느님의 도(道)로 감화시켜야 될지라.[82][83]

---

71) 이영식, 같은 책, 98쪽.

72) 조선 사회가 숭명반청(崇明反淸)사상이었지만 김윤식(金允植, 1835-1922)같은 유학자는 숭명반청에 반대한 유학자이지만 여전히 청나라를 문화적 중심이자 정치적 대국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중국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김명섭, 김석원, 같은 책)

정치적 대국으로 여겼다

73) 서재필과 윤치오는 종교적 차원에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양반계층 입교인이다. (류대영,「종교와 근대성: 개신교에 대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태도와 근대성 문제」,『종교 문화비평』, 4, 2003, 33-70쪽 참조)

74) 독립협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이며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사상에 의해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운동을 전개하였다.

75) 서영희.『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6-47쪽.

76) 류대영, 위의 책.

77) 신민회는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을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78) 독립협회와 신민회는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중첩되어 활동하던 국권회복운동 단체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지만 기독교와 관련된 가장 관련성이 깊은 중요 인물인 이승만의 독립협회와 김구의 신민회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79) 김명섭, 김석원,「김구와 이승만의 지정인식: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43(3), 2009, 51-75쪽.

80) 신효승,「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8) 212-214쪽 참조.

81) 유영익, 위의 책, 207쪽.

82)「예수교가 대한 장래의 기초」,『신학월보』, 1903. 8.

하느님이 세상 사람을 똑같이 내시고 그 중에 똑같은 권리를 주셨으니 ... (중략) ... 우리 나라 사

람이 많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 피차 남의 압제를 무수히 당하며 필경 나라가 자주독립 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어렵게 된지라. 예수교로써 변화시키지 않으며 독립할 생각이 들 수 없는 고로 유지각한 이들은 다 대한 장래의 여망을 예수교에 바라는 바라. ... (중략) ... 우리 대한 이천만 인구가 다 하느님이 일체로 주신 자주권리를 잃지 않도록 힘쓰게 하고자 함이라.[84]

이승만은 미국인 선교사가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가 1885년에 세운 배재학당에서 서재필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였으며 기독교적 맥락 속에서 주권과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감옥에 넣어주던 영문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독립정신을 배웠다.[85] 이것은 결국 국가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정신으로 연결되었다.[86] 김구 역시 중국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였다.[87]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을 전후하여 두 인물은 강한 독립의지를 갖게 되었다.[88] 왜냐하면 이승만과 김구에게 기독교는 개인적 신앙 차원의 종교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관과 세계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89]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들어 행하는 종교에 대하여 신구(新舊)와 진가(眞假)의 차이를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중략)... 한 사람의 마음으로써 천만인의 마음을 삼고, 한 사람의 눈과 귀로써 천만인의 눈과 귀를 삼아 가르치고 규제하는 것은, 사람을 구속하고 압제하려는 의미가 있음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이 구교(舊敎) 중에서 허다한 폐단이 생겨난 이유이다. 지금 러시아인들이 신봉하는 희랍정교(希臘正敎)도 구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 교리를 대강 살펴보면, 러시아 황제는 의례히 총교주(總敎主)의 칭호를 갖게 된다. ... (중략) ... 지금 러시아 사람의 교리가 저러한 것을 볼 때, 그 정령과 속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90]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개신교 종교개혁(the Protestant Reformation)에서 종교개혁 선언(1517) 이후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며 독립된 자유를 지닌 자라는 만인사제설에 근거해서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개별 개인들이 집합체인 국가 역시 다른 나라에 병합되거나 종

83) 문서에 대한 해설과 원문, 번역전문은 유영익(2002)의 연구에 도움을 받았음(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본 저서에서 이승만 관련 원전은 주로 재인용함)
84) 「교회 경략」, 『신학월보』, 1903. 11.
85) 이승만은 감옥에서 Outlook, Independent 등의 잡지를 탐독했다고 한다.(이정식 저. 권기붕 역. 2002.『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서울: 동아일보사, 109쪽.)
86) 김명섭, 김석원, 「독립의 지정학: 대한제국시기(1897-1910) 이승만의 지정학적 인식과 개신교」, 『한국정치학회보』42(4), 2008, 59-86쪽.
87) 김명섭, 김석원, 「김구와 이승만의 지정인식: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3), 2009, 51-75쪽.
88) 김명섭, 김석원, 「독립의 지정학: 대한제국시기(1897-1910) 이승만의 지정학적 인식과 개신교」, 『한국정치학회보』42(4), 2008, 59-86쪽.
89) McGrath, Alister.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The Protestant Revolution - A History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Twenty-First. New York: Harper One. 2007, p. 52.
90) 위의 글은 "러시아의 남하경고와 개신교. 신학문 권장론"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고 한다.(김명섭, 김석원, 같은 책 재인용)

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91]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들 모두가 천자(天子)이며 모든 개별 국가가 중국(中國)으로 인식하게 해준 계기는 바로 기독교였다는 사실이다.[92] 유럽의 국가들이 독립된 국가임을 주장한 베스트팔렌 질서(Westphalian order)가 등장할 수 있게 된 정신적 원동력도 역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93]

> 하느님께서 타국 사람에게는 모든 권리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지백체와 이목구비를 아니주셨는가. ... (중략) ... 대저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천백대의 무궁히 끼치신 모든 은혜 중에 우리가 가장 감격하게 여기는 바는 모든 세상사람의 결박을 다 풀어 놓으신 것이라. 첫째, 율법의 결박을 풀어 주심이니.. (중략) ... 옛법의 심히 압제하는 굴레를 벗게 하심인 고로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주의가 자라는 법이라. 교회로 말할진대 마틴 루터씨가 교를 고칠 때에 이 뜻을 드러내었고 정치상으로 말할진대 워싱턴 씨가 미국을 독립할 때에 이 뜻을 드러내었으며...[94]

이러한 차원에서 1918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National elf-determination) 원칙이 공포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영향을 받은 3·1운동은 독립의 열망을 부르짖었으며 자유를 외쳤다.[95] 3·1운동은 시대적 견지에서의 독립운동이었으며,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96] 이러한 운동은 주변 아시아 국가에 자극제가 되었다.[97] 3·1운동은 제국주의의 탄압과 억압에 저항하며 자유와 독립, 평화를 표출하면서 신분과 성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국민의 평화를 요구한 최초의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으며 근대화의 근간에 해당하는 근대적 개인을 강조한 운동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인, 모든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 사상 앞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속바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으며 하나의 강한 국가가 다른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정다하는 관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3·1 기독교적 정신에서 개인적 차원의 개인의 자유를 자중하듯이, 국제정치학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3·1운동은 기독교[98],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인이 통합하고

---

91)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1절

92) 김명섭, 김석원, 같은 책.

93) Philpott, Daniel. 2000. " The Religious Root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52. 2000, 214-216쪽.

94)「대한 교우들이 힘쓸 일」,『신학월보』, 1904. 8.

95) 이만열,『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378-379쪽.

96) "대통령 윌슨은 (중략) 청원서 한 장을 받으니 이는 바로 한국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들이 보낸 글이다. 그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윌슨)에게 관숙한 바로 그 이름은 이승만 철학박사이다. 그는 박사학위를 Old Nassu에서 받을 때에 윌슨씨는 그 학교 교수로 있었다. 박사는 현재 호놀룰루에서 발행하는 국민보의 기자이다(그 때에 윌슨씨는 이박사를 미국 상원 의원에게 소개하며 말하기를 "그는 장래 한국의 구세주이다.(He is Future Redeemer of Korea)"라고 하였다.)" (『신한민보』, 1919. 2. 6. '코리아는 자유를 위하야 윌슨께 청원' 참조, 신효승, 같은 책, 214쪽. 재인용)

97) Geoffrey Best, 1999. Peace Conferrences and the Century of Total War; The 1899 Hague Conferrence and What Came After, International Affairs(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75, No. 3, Jul.

98) "1912년 3월 이승만은 일본 동경에서 <독립정신>에 바탕을 둔 연설을 했다. 김 교수는 "이승만이 연설하니 당시 돈으로 1300엔 정도가 모였고, 이는 동경 YMCA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 건물은 3·1운동의 계기가 된 2·8 독립선언의 모태가 된 건물"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19/2019021900223.html에서 3·1독립운동 출발점,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뉴데일리에 실린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기사를 재인용) (이승만은『독립정신(1910)』,『한국교회핍박(1913)』 그리고『청일전긔(1917)』가 한국어로 쓰였으며(『梨花莊所藏雩南李承晩文書: 東文篇(전18권)』에 수록되어 있고, 이중에서 서한은 정서되어『李承晩東文書翰集(上·中·下)』로 다시 출간됨)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1912)와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1941)는

양반과 농민, 여성, 상민, 천민, 군인 등 신분의 경계를 넘어선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99] 1919년 3. 1운동 이후에 구성된 각종 임시정부에 구성된 인물들은 모두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에 속해있지 않은 이단인 개신교와 천도교 인물이었으며 조선왕조의 회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100]

5. 나오는 말

> 진리는 현존하고 있고, 무지와 오류는 끝이 났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유혹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기분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뢰를 주고, 삶을 가볍게 해준다. 그것은 불신을 줄여주는 한 성격을 개선시킨다. 영혼의 평화, 양심의 평정, 이것들 모두는 진리가 현존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날조이다.[10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시기[102]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구 사회의 문화와 예술의 각 장르간의 폐쇄성에 반발하면서 고급문화와 저급 문화라는 문화적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일어났으며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1968년의 반문화운동과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반전운동을 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103] 대학가들의 급진적인 운동들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근대 세계의 이분법적 도식(문명/야만, 전근대와 근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리와 비진리, 기독교와 비기독교, 서양과 동양, 이성애와 동성애 등)을 해체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말은 'Post'와 'modernism'의 합성어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Post를 '후기'라고 해석하면 모더니즘(근대 사상; modernism)의 연속이라는 의미이며 모더니즘 이후에(POST)에 등장한 담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모더니즘의 불연속이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해체한다는 의미가 강하다.[104]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중심적인 주제인 단일한 중심과 단일성을 거부하고 다원적 중심과 다원성을 주창한 것이다.[105] 이성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강화되었던 모더니즘이 인간과 사회를 획일화시키고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다고 인식하면서 등장하였다.[106] 근대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할 때 가능한 사회 제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서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으며 서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구 문화의 핵심인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움직임이 강렬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본주의 배후에 세력인 기독교를 가장 강렬히 비판한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1848)에서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라고 하면

모두 영어로 쓰인 박사논문과 책이다. 김명섭, 김석원, 같은 책, 재인용),

99) 신옥주,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본 3·1운동의 재인식: 3·1운동과 여성, 평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집1호, 2018. 45-68쪽.

100) 김명섭, 김석원, 같은 책.

101) Friedrich Nietzsche, Der Wille zur Macbt, 제2권 p.452. 권택영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서울: 문예출판사, 1992), p.49에서 재인용.

102)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된 시기는 대체로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관점이 대세이다.

103)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3판; 서울: IVP, 2000), 15쪽.

104)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서울:IVP, 2002), 40쪽.

105) 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Eedermans, 1996), 49쪽.

106) 같은 책, 236.

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권력을 탈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다. 문화적 차원에서 새롭게 옷을 입은 공산주의자들은 문화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성문제를 전제 문제로, 이성애 이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화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이며 근대적 가치의 중심에 놓여있는 개인의 자유의 의미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